

대통합 언어이론을 향하여

문경환
(연세대학교)

친구여, 모든 이론은 잿빛이니,
푸르름은 인생의 금빛 나무에 있다네.

Grau, teuer Freund, ist alle Theorie,
Und grün des Lebens goldner Baum. (*Faust* I: 1938-9)

이론물리학의 지상과제 중 하나는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인 중력, 강핵력, 약핵력, 전자기력을 단 하나의 법칙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여 '대통일 이론'을 이루는 일이라 한다. 그런데 언어를 대상으로 대통합 이론을 운위한다면 가당치 않게 들릴 것이다. 과학 지향의 언어이론일수록 오히려 포괄체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일조차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마저 든다.

혹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광대무변의 우주공간으로 펼쳐지는 천체의 무도(舞蹈)뿐 아니라 대자연의 심장에서 극미의 세계를 움직이는 아원자의 힘까지도 한꺼번에 설명하려는 것이 물리과학 분야의 포부일진대, 우리의 귀와 눈에 친숙한 언어에 관해 이론체계의 종합을 모색하는 것이 뭐 그리 허황된 일이겠는가. 기실 이런 종류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언어분석을 통해 모종의 통합과학을 기획한 경우가 그 하나의 예인데, 이를 단초로 하여 이야기의 가닥을 잡아볼까 한다. (논지의 흐름에 거주장스러운 본궤일탈을 되도록 삼가면서 관련 사항들을 첨언 내지 상술하기 위해 각주를 비교적 많이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각주가 성가시다면 본문의 내용만으로도 족하리라 믿는다.)

분석철학의 경우

철학의 여러 유파 중에서 '언어철학'과 '분석철학'은 흔히 동의어처럼 사용되는데, 이는 후자가 언어분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리실증주

의에 입각하여 수리논리학의 정립에 몰두하는 언어분석파가 있어 왔다. 이 학파에 의하면 이른바 논리단소(logical simple)들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만이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그렇지 못한 명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이는 경험주의 언어로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일체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 원자론적 언어철학의 출현에는 '철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인류사의 첫머리에서 철학은 참으로 광범위한 사유체계였다. 초자연에 대한 미신과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삶의 가치에 관해 생각하게 만든 것이 철학이다. 그럼에 있어 과학은 철학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피붙이가 성장하여 출가하면서 '자연의 책'도 함께 챙겼다. 초자연에 관한 이야기는 벌써 한참 전에 독립한 신학이 도맡게 된 터였고, 근현대로 진행하면서 현저해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경제생활의 풍요로움은 삶에 관한 전통 철학의 조언을 점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는 철학에 속하던 여러 의문이 소급되는 가운데, 철학은 모호하고 공허한 사변법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안다 하더라도 그 앎이 과연 올바른 앎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생각한다는 것도 결국은 편견의 연쇄작용이 아닐까.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과학자들은 급기야 '철학에의 침입'이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과학적 철학', '철학의 과학', '과학의 형이상학', '물리학적 인식론' 등의 용어가 친숙한 개념으로 등장했다. (오늘날 '과학철학'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무한대로 팽창하는 우주공간과 무한소로 수렴하는 아원자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계속하는 인간 의식은 얼마전 역사철학이 갑론을박 속에 내세우던 상대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확실하고 필연적인 것과 확률적이고 개연적인 것 (즉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 기계적 결정론에 입각한 숙명론과 비결정론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의지론,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나선형 선회를 거듭하며 대

-
- 1)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 언어의 본질에 관해 논하는 것이라면 모두 언어철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면 수많은 언어철학자들이 역사에 있어 왔다. 분석철학도 넓게는 적어도 데카르트나 칸트 식의 인식론까지 포괄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고틀로프 프레게, 쥘리 무어, 러셀, 비트겐슈타인, 카르납 등의 언어분석법을 개괄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이다. 나중에 보게 되듯이 분석철학에도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면상 (그리고 논지의 선명성을 위해) 이 중 논리실증주의 분석철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각 연구 분야는 세부 영역을 한층 더 뚜렷이 달리하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소위 ‘과학적 사고방식’의 여파인 셈이다. 미에 관한 철학적 설명법도 미를 직접 다루는 당사자들로부터는 허튼 소리로 냉소받는 형편이다.²⁾ 이제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 다음과 같은 한탄도 무리가 아니다 (Durant 1962, 1-2).

어째서 철학은 오늘날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가? 어째서 철학의 자손인 과학은 어머니의 재산을 갈라먹고도, 한겨울의 바람보다도 더 매정한 배은망덕으로 리어왕 내쫓듯이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는가? [중략] 한때 그녀는 더없이 심오한 마음들을 혼혼한 온기와 광채로 채워주는 오색찬연의 불빛이었건만, 이제는 단편적인 과학과 좀스런 교설의 창피스런 더부살이 신세로구나.

하지만 어찌 신세타령만 하고 있을쏘냐. 인식론을 빼앗기고, 형이상학도 윤리학도 여의고, 미학마저 손을 떠나려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논리학만큼은 아직 품안에 고이 남아 있지 않은가. 이 마지막 혈육에 희망을 걸어 보자.

이렇듯 철학이 상실의 아픔을 논리학에서 추스르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논리실증주의라 할 수 있다. 지나친 단순논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물의 실상은 그것을 덮어 흐리는 세부사항들을 괄호쳐 속아내고 그 내력과 내용을 압축하여 단순화할 때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아무튼 이 새로운 유형의 실증주의 운동이 논리적 언어분석을 통해 이루어 한 것은 ‘철학과 과학의 통합’ 내지 ‘철학의 과학화’인 바, 그 출발점을 종전의 철학에 대한 (모리츠 슈리크의) 다음과 같은 비판에 두고 있다.

언명과 물음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철학의 고유 임무이다. 철학사의 많은 부분 중 철학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혼돈상태는, 첫째로 어떤 설명방식이 실제로 어떤 뜻을 지니는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기도 전에 그 설명이 사실적인 의미를 가진 물음이라고 미리 간주하려는 불행한 사실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러한 물음들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대답들이 전문적인 과학의 방법론과는 전적으로 다른, 전문적인 철학적 방법들의

2) “감상적 오류에 관하여”(Of the Pathetic Fallacy)라는 글 초두에 존 러스킨이 바움가르텐 내지 칸트 류의 미학이 영국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면서 ‘독일식 둔감’(German dullness)이 ‘영국식 허영심’(English affectation)에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평한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도움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뮤니츠 1997, 440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철학은 과학의 논리이며, 논리적 관점에서만 과학을 다룬다”라든가 “철학이 경험과학과 나란히 하나의 독자적인 대상 영역이 된다는 것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등의 실천요강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철학의 위기 극복과 입지 회복을 명분으로 하여 출발한 논리실증주의가 도달한 곳은 결국 어디인가. 방금 보았듯이 그것은 어이없게도 철학의 막다른 골목이다. 굴욕적인 타협의 뒷골목이다. 실증주의와 눈이 맞은 논리학이 자기에게 애달픈 기대를 거는 어미를 아예 과학의 손에 넘겨 버리려는 자리이다. ‘만학의 여왕’이던 철학이 한 동안 ‘신학의 시녀’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영락없이 ‘단편적인 과학과 좁스런 교설의 창피스런 더부살이 신세’로 연명해야 할 판국이다.

아무리 차분하게 평가해도, 논리실증주의 분석철학은 철학을 매우 협소한 것으로 만들려 한 혐의를 벗기 힘들다. 거짓 진술 색출을 위한 경찰의 역만이 철학에게 남겨져야 한다니 말이다. 카르납에 의하면 가령 하이데거 식의 문장들은 의미를 결여한 ‘사이비’ 언술들이라는데(뮤니츠 1997, 452), 그렇다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전문적인 과학의 방법론’이 적용될 수 없는 언어적 표현들은 모두 무의미하단 말인가. 실제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위의 문제, 가능세계에 준거한 정당성 문제, 이런 부류만을 다루는 것이 ‘철학의 고유 임무’인가.³⁾ 가령 내가 ‘실증주의는 싫증난다’고 한다면 나의 이러한 느낌은 ‘사실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가?

‘철학의 과학화’ 내지 ‘철학과 과학의 통합’이 논리실증주의 운동의 목표라고 위에서 말했지만, 실은 이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논리단소화를 본령으로 하는 언어 분석을 통해 학문이론 일반을 과학화함으로써 (바꿔 말해 ‘과학적 이론’의 개념을

3) 진리치(truth-value) 외에도 정당성(validity)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은 논리학이 이미 밝혔다. 가령 ‘모든 파충류는 알을 낳는다 / 도마뱀은 알을 낳는다 / 따라서 도마뱀은 파충류이다’라고 하면 세 개의 각 명제가 참(true)이지만 부당한(invalid) 삼단논법이다. 반면에 ‘모든 곤충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 거미는 곤충이다 / 따라서 거미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 하면 세 명제가 모두 거짓(false)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정당(valid)한 추론이다. 그런데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떼지 못했다. 가령 ‘지금껏 몇 시인지 아세요?’라는 발언은 진리치나 정당성과는 무관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떠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이는 특히 의미있는 발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화행론’에 의해 적정성(felicity 혹은 happiness)의 개념으로 설명되기에 이르지만, 이로써 의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립함으로써) 과학을 지향하는 몇 학문분야에 대해 하나의 전범(典範)을 제시하려는 궁극적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사회학은 심리학으로, 심리학은 생물학으로, 생물학은 화학으로, 화학은 물리학으로, 하는 식의 순차적 환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문으로 하여금 물리현상을 대하듯 제반 사상(事象)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통합 프로그램의 기본 발상이다.⁴⁾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학문분야는 전문화와 세분화 일로를 달려 왔으며, 세분화가 점차 폐쇄화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각 분야 사이에 지적 단절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이에 대한 총체론적 해결법을 모색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대방지가(大方之家)의 시대는 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초 일군의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법학자 등이 ‘통일된 학문이론’ 내지 ‘통합학문’을 모토로 이른바 ‘비엔나 서클’을 결성하였으니, 이렇게 생겨난 것이 논리실증주의 운동이다. 학문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학제적’ 시도인 셈인데, 이는 몇 학문분야를 관찰하는 하나의 공통 축이 언어라는 점에 착상한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철학사에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이라는 신조어를 남기기도 했거니와, 기실 몇 학문의 근간이 언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발상 자체에는 일리가 있다.⁵⁾ 다만 언어의 논리단소화에 집착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어째서 그것이 ‘우’인가? 위에서 말한 ‘철학의 협소화’라는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
- 4) Popper(1977)의 ‘사회공학’론도 크게 보면 이러한 기본 이념의 소산이다. 그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검증론(verificationism)을 반박하면서 반증론(falsificationism) 내지 오류가능론(fallibilism)을 주창하거나(1959; 1963), 이러한 과학철학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 그의 사회공학론이다. 간단히 말해 명시적인 반증의 여지를 자체 내에 포괄하는(즉 모호한 개념을 내포하지 않은) 이론만이 ‘과학적’이고 또 발전가능하듯이, 사회의 기득권 조직은 오류점점에 대해 투명해야 하며 또 이렇게 ‘열린’ 사회만이 개선가능하다는 요지이다. (이러한 사회공학 개념은 이미 1963, 336-363에서도 엿보인다.) 그는 논리실증주의의 특정 가설들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또 수리논리적 언어분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과학의 견지에서 사회학을 논할 정도로 기본 성향에 있어서는 논리실증적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간혹 논리실증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가 가령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진정한 과학으로 인정치 않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1963, 33-9/333-5).
- 5) 언어적 변환이란 대략 존재나 인식보다 언어적 의미를 더 중시하게 된—혹은 존재론이나 인식론을 의미론적으로 접근하게 된—계기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로, 비엔나 학파의 후기 멤버인 Gustav Bergman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하의 시도가 '언어란 곧 논리'라는 대전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수사학』은 변론가의 능력을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로 나누어, 이를 각각 화자의 인품과 태도를 통해 청중의 관심과 신뢰감을 얻는 것, 청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기질 등 제반 정서적 요인에 호소하여 감동을 자아내는 것, 합리적 사유에 준거한 추론으로 논지를 세워 입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성창 2000, 44-52). 수사술에 연관하여 논리학, 문법, 문체론, 심리학, 윤리학, 사회학 등에 해당하는 분야를 두루 다루는 이 세 권짜리 저술 중 처음 두 권은 대부분 논리학에 관한 서술에 할애되고 있다 하는데, 이는 논리학을 통해 수사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고전논리학'의 탄생 배경이 이러하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logos가 logic의 동의어쯤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techne logike가 logic의 어원적 출처이다.) 그러니 그가 인간에 대해 '로고스를 지닌 동물'(zoon logon echon)이라 한 것은 '언어를 지닌 인간'(homo loquens)보다 '논리를 지닌 인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한다'는 뜻의 라틴어 loquor—혹은 '원형' loqui—는 희랍어 logos에서 유래했을 법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말이지만, 원래 로고스는 매우 넓은 뜻을 지니던 낱말이었다. 그리스 철학은 다양하게 보이는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진짜 존재를 로고스에서 구하고 있었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이 '진짜 존재로서의 로고스'에 대한 별칭이라 할 수 있다. "로고스라는 여러 사유를 통해 사물의 진리를 보도록 모색하는 일이 나에게서는 필요불가결한 것같았다"고 그는 말한다(『파이돈』: 플라레 1993, 8에서 재인용).⁶⁾ 이데아는

6) 주지하듯이 자끄 데리다는 플라톤식 '로고스 중심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현상계(혹은 '텍스트') 너머의 그 어떤 초월적·절대적 실재도 부정한다. 관념론 전통의 고정 가치관을 해체하고 다양성 지향의 세계관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궁극적 진리니 본질이니 하는 개념이 아집과 편견 또는 독선적 권위주의를 조장해 온 인류사를 회고해 볼 때, 데리다의 지론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 이면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상계 너머의 실재를 상징하는 객관적 관념론을 혐오하는 가운데, 주관적 관념론자들이 범했던 회의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목하의 해체론 아닌가? 이 세상 만사와 존재는 자체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오로지 상대적 차이의 나선형 대립 속에서 희미한 그물망 같은 것이 되어 어딘가로부터 어딘가로 영원한 회기를 계속할 뿐인가? 이렇듯 '지연되는 차이' 속에서 인간은 자기 나름의 진리를 찾지 못한 채 호의준순(狐疑逡巡)을 되풀이할 운명인가? 이 세상에 진리란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가? 글썄, 마주선 거울마냥 하나의 해체론은 또다른 해체론의 끝없는 상호해체 대상이라는 것이 데리다적 메시지이니, 이런 질문들 자체가 허망하다. 언필칭 '해체구성'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체(즉 파괴)일 뿐 '구성'

사유로서의 로고스 즉 '마음의 눈'에 의해 형상화되는 원형(arche)인 썸이다. (희랍어 idein은 '본다'는 뜻이다.)

로고스라는 말을 최초로 부각시킨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로, 그는 "대립적인 생성소멸에 따라 만물을 형성하는 것이 로고스다"라고도 하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로고스는 영혼에 고유한 것이다"라고도 했으며, "로고스가 보편적인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독자적 지혜가 있는 양 살고 있다"고도 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로 시작되는 성서의 요한복음도 실은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반영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는 '불'이고 성서의 로고스는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보듯이) '하나님'이지만, 모두 만물의 생성소멸원리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구한 세월이 흘러 괴테는 로고스를 말(Wort), 뜻(Sinn), 힘(Kraft), 행위(Tat) 등으로 풀이하고 있으며(『파우스트』 I: 1224-37행),⁷⁾ 엘리엇의 『네 개의 사중주』에는 위에 인용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 중 마지막의 것이 제사(epigraph)로 쓰이고 있다.⁸⁾

이렇듯 로고스는 흔히 알려진 '말·이치·사유' 등의 뜻을 넘어서서 '뫼토스'와

은 별무상관인 것 같다. 이 현대판 소피스트는 저 옛날 자기와 같은 사람을 향해 비판의 예봉을 들었던 소크라테스도 내친 김에 폐기처분해 버린다. 용기·정직·신의 따위는 모두 허위 개념이거나 기득권 논리에 기생하는 도덕론 로고스인가? 데리다의 해체론 뒷면으로는 이상을 비웃는 극단적 현실주의, 진리를 향한 심성을 지워버리려는 회의주의적 냉소, 그 어떤 전통도 상대주의의 기치하에 '미리' 전복해 버리는 무대책 타파론, 이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의 문학론에 대한 Tallis(1988)의 비판에도 귀기울여 볼 만하다.

- 7) '로고스'의 독일어역으로 괴테가 'Tat' (행위)를 최종 선택한 것은 '말이 곧 행위'라는 인식에 그가 도달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화행론(speech act theory)의 창안자는 흔히들 말하듯 John Austin(1962)이 아니라 괴테인 썸이다. 아니, 진짜 원조는 구약성서 창세기의 필자인 모세라 함이 옳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고 했으니, 이야말로 최고로 승엄한 화행론 표현법 아닌가! 종교적 교설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삼라만상이 존재함은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말해 '혼돈 상태' (chaos)가 '정돈 상태' (cosmos)로 변하는 것은 말의 힘이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화행론적 우주생성론이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로고스를 읊기는 과정에서 '말'과 '힘'의 뜻을 거쳤음을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하다.)
- 8) 이 작품에서 로고스는 현상계('천체의 무도')의 절정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있는 부동(不動)의 일점 즉 정점(still point: "Burnt Norton," 62-67행/139-142행) 내지 성서의 정화(purgatorial fire: "East Coker," 162-166행; "Little Gidding," 252-9행)에 연결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불타(佛陀)의 '불의 설법' (『황무지』, "The Fire Sermon," 308행)에 관한 原註 참조)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에 대한 인용이기도 하다.

도 혼연일체하는 신비스런 낱말이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도 로고스와 뮈토스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뮈토스의 언어가 아니고서는 당대의 '잠자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자신의 이데아를 전파할 수 없었으므로 로고스에 뮈토스를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굴 속에서 벽의 그림자만 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를 실재라 믿고 있어, 그림자의 작인(作因)인 태양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어쩌다 동굴을 벗어난 사람도 태양의 광선에 눈이 아파 차라리 그림자의 즐거운 기만 쪽을 택한다. 그리하여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 살면서 간혹 눈부심의 경험을 말해 보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엄밀성을 추구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달리 뮈토스를 혐오한 나머지 로고스로부터 분리해 냈으며, 이렇게 하여 (고전)논리학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래, 그리고 현대논리학이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리학과 언어이론은 진정한 친분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리학이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논리화가 가능한 언어를 추출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결국 '자연언어'가 아닌 '논리어'가 관심사이다. 자연어는 온갖 정서적 요소로 뒤범벅되어 부정확하고 애매하다는 것, 변질되기 십상이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정연한 체계'와는 애당초 인연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논리실증주의 분석철학이 언어를 논리단소로 환원하는 일에 매진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부정적 언어관 때문이지만, 그 작업장에서 들고 나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미 보았듯이 그것은 '통일된 학문이론의 전범'을 기초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언어이론이다. 결국 이 철학유파는 철학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그리고 통합학문을 향한 학제적 시도에 있어서도 모두 실패한 셈이며, 또한 우리의 주제인 '대통합 언어이론'과도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분석철학은 흔히 '영미철학'이라고도 불리거니와, 이 호칭도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영국철학의 전통 노선에 속하는 홉즈, 로크, 버클리, 흄 등은 일상언어(즉 자연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조지 무어의 견해도 이랬다. 분석철학은 러셀이나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대표로 하는 (논리어 중심의) '형식언어분석파' 그리고 무어 및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위시한 (자연어 중심의) '일상언어분석파'로 나뉘는 바, 지금까지 논한 점들을 감안하면 (관념철학 성향의 '대륙철학'과 대조되는) '영미철학'은 결국 이 두 부류 중 후자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⁹⁾

9) 철언하건대, 러셀은 무어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이론적 성향을 달리했다. 또한 다음과 같

그렇다고 지금까지 논한 논리실증주의 언어관이 '독일적'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야스퍼스는 논리어와 자연어의 차이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어떤 형식주의적 조작도 자연언어의 지평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1947, 22-3),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에서와 같은 초기의 논리실증적 입장을 버리고 『철학적 탐구』에서 보이는 '언어사용론' 중심의 일상언어분석 쪽으로 선회했다. 논리기호를 고안하여 설정하기까지의 단계, 논리전개 상의 단계, 그리고 그렇게 하여 얻어진 기호적 표상으로서의 논리어를 해석하는 최종 단계, 이 모두에서 자연언어의 개입은 필연적이라는 점을 이들은 간파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형식언어분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덜 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는 마치 고대 도시와 같다; 조그마한 골목들과 광장들, 오래된 집들과 새로 지은 집들, 그리고 각기 다른 시대에 증축된 부분들이 미로와 같이 얽혀 있다"고 이제 그는 말한다(1953, I: #18).

지금까지의 논지가 논리실증적 언어분석의 학문적 의의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고는 미망과 오류에 사로잡히기 쉬우며, 그릇된 사고는 언어로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종전의 철학이나 과학이 자명하다고 믿어 왔던 것들 중에는 전혀 자명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솔하게 있을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인식과 그렇지 못한 인식,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등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이 과학답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사하는 데에 일력을 했다고 평할 수 있다. 『논리철학 논고』의 서문에서 보듯이 비트겐슈타인도 초기에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 언어분석론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Wovon man nicht sprechen kann, darüber muß man schweigen)고 했거니와, 이는 말의 오용에 의해 혼란스러워진 형이상학적 사고에 일침을 가하는 명언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논리어나 논리학 자체를 배격하려는 것도 물론 아니다. 명석판단의 중요성을 일

은 회고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스승 격이면서도 후자로부터 학문적 충격을 받았다: "나의 지적 여정은 어떤 점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나는 수학을 존경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수학이란 항진명제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게끔 나를 유도했을 때에는 괴로웠다"(뮤니츠 1997, 236). 무어와 비트겐슈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러셀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시사하는 바 있다: "언젠가 나는 무어에게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무어는 '매우 좋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내 강의시간에 그는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같은 책, 318).

깨움에 있어 논리학이 크게 공헌해 왔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언어에 논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물론 중요하며, 그 결과가 기호논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논리어는 명석판단의 훈련뿐 아니라 복잡한 명제들의 일목요연한 전개를 위해 구체적이고도 유용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괴테의 말을 빌리자면, 논리학을 함으로써 “도깨비 불처럼 가로 세로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파우스트』 I: 1916-7행).

그러나 논리주의가 부지불식간에 빠져들 수 있는 (혹은 대전제로 채택하고 있는) 명제, 즉 자연언어는 논리나 사유의 왜곡된 모습이며 따라서 오로지 논리어만이 자연어의 불합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식의 부정적 언어관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¹⁰⁾ 이는 부정적이기에 앞서 ‘잘못된’ 언어관이다. 자연어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못한 솜씨에 맡겨지면 못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잘 조각된 언어는 머리와 가슴에 파고들어 정곡을 찌르고 감동을 준다. 논리어는 좀처럼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 하지만, 그만큼 차갑기만 하다. 일정한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까닭에 친편일물이고 무색무취다. 자연어를 꽤도난마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면도날의 범위는 보잘 것 없다. logos는 역시 logic 이상의 무엇인 것이다.

“개념이 미흡한 곳에 말이 제때 찾아 든다”는 견해도 있거니와(『파우스트』 I: 1995-6행), 사실 엄밀한 논리형식을 전제하고서는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말할 수 없다. 삶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주는 언어, 스스로도 부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 언어가 차라리 반갑다. 철학이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맞잡고 가면서 때로 몹시 혼란스런 얼굴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숨어 있는 모순들을 휘어진 거울에 비추듯 확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철학은 문제 제기법이 문제 해결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의문들을 철학은 끊임없이 일깨운다. 그리고 과학이 해법을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상기시킨다. 철학

10) 논리어 정립을 주장한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 언어관의 소유자라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라 이프니츠는 수리체계에 입각한 보편문자(characteristica universalis)를 주창하면서도 결코 자연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인류공통어에 대한 소박한 희망이 표출된 것이 그의 보편문자론이지만, 그는 각개 언어의 역사와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Cassirer가 논리어를 추구한 것은 자연어가 개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다만 사유체계의 기호적 표상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언어가 사고와 인식의 조형자이며 나아가 신화의 제조자라는 능동적 언어관을 그는 버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힐덜린이나 키츠와 같은 시인에게서 보는 언어의 힘과 미학을 언급하기도 했다(1946, 1장/3장).

사는 단순히 사변법의 변천사가 아니라 모순과 갈등과 투쟁의 연대기이기도 하다. 인간이 보이는 실패와 좌절의 예들을 기록하면서 때로는 행동의 모습을 요구한다.

현대언어학의 경우

분석철학적인 언어이론이 '대통합 언어이론'으로서 부적격이라면, 언어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언어이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언어학이니 말이다. 엄격한 방법론을 중시한다는 점, 문제영역을 성격 별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을 한정한다는 점,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 형이상학적인 어휘를 배제한다는 점, 대략 이런 면에서 현대언어학은 논리실증주의와 유사한 데가 있다. (후자와 달리 언어학은 어떤 실철 방향을 주장하는 '주의'가 아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두 분야 모두 '과학'을 표방하는 것이다.

'대략'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상기 준칙에 대해 언어학 분파마다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식의미론과 같이 논리실증주의 언어분석과 맥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이클 헬리데이를 위시한) 런던학파와 같이 "이론은 사치스러워야 한다"(Theories should be extravagant)고 주장할 정도로 엄격한 방법론이나 문제영역의 설정 나아가 가치중립성까지도 거의 일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대언어학의 주류라 할 수 있는 '구조주의 언어학'만 하더라도 프랑스 태생의 것과 미국 태생의 것은 방법론이나 내용에 있어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응용언어학에 대비되는) 이론언어학의 경우 위에 언급된 준칙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 준칙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합 언어이론'과 무관하기로는 언어학도 논리실증적 언어분석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자연언어의 논리어화를 모토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다. 즉 대개의 언어학 이론들은 언어가 사유의 왜곡된 모습임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다.¹¹⁾ 언어학이 형식체계를 사용한다면 이는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 즉 '메타언어'의 차원에서이지, 언어 자체의 논리 단소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언어학은 자연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실상은 별로 그렇지도 못한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위에 언급한 방

11) '형식의미론'에는 이런 언어관이 어른겨린다. 이 언어학 분파는 앞에서 언급한 '형식언어분석파'의 한 지류로, 결국 논리실증주의의 소산이다.

법론상의 체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 체계를 지키지 않은 한 이미 ‘언어학’ 이 아니라는 생각이 언어학도 사이에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외부적 인식 속에도) 굳어져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언어학이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준칙들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논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 상태로서의 언어학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면 언어학이 아니라는 식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언어에 대해 폭넓고 깊은 소양과 감각을 지닌 술한 언어학자들이 이론상의 형식주의의 기준 때문에 ‘비주류’로 밀려나 결국은 잊혀지고 따라서 오늘날의 언어학도 사이에 언급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이는 실로 의미있는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비주류파’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언어감각의 소유자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말이다.)

필자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째서 방금 말한 식의 고정관념이 언어학에 대한 국외자들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용되기에 이르렀느냐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언어학 전공자들 자신이 거의 한결같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가 전자에 대한 이유라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저 옛날 스크라학파의 ‘저자씨 자르는 사람들’(cymini sectores)을 본받기라도 하려는 듯 오로지 언어의 어느 한 단면, 그것도 자기가 속한 이론 분야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천착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다수 언어학도가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문하는 태도요, 학문계나 삶 속에서 언어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심각하게 논하는 따위는 외도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 듯한 모양이다. 이들의 ‘학구심’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몇달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론의 행렬에 뒤쳐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바로 그것일 터이다. 이론모형의 변화를 알리는 어떤 새로운 동향이 감지될 때마다 이를 초특급으로 수입 내지 입수하여 소개하거나 자기의 이론에 재빨리 반영하는 것이 학자 본연의 자세라고 믿고 있는 듯한 모습, 혹은 하나의 이론분파에 불박여 있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은 곧 학문의 길을 포기한 유리방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들의 삽화적 인상이다.

물론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한 외부 시각에 지나치게 개의할 필요는 없다. 모름지기 이론가란 세정(世情)으로부터 초연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초연과 편협은 구별되어야 한다.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삶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그 속에서의 역할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음을 망각할 정도라면 이는 사리분별의 부족일 뿐이다. 한정된 영역을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적 자세는 물론 중요하지만, 가기가 판 갯도에 스스로 매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론의 추이를 파악하여 자신의 이론을 반추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끊임없는 회의(懷疑)와 수용을 통해 오류를 시정해 나아가는 것이 이론의 특성이요 본질이다. 이전에 보았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인간의 성향인지라, 인간 지각은 착오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어떤 관찰법이 예측하는 결과가 놀랄만한 것일수록 오히려 그 관찰법을 재검토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론가의 자세이다. 이론은 뫼토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이한 신화나 종교들은 서로 마찰하면서도 늘 공존하지만, 경쟁관계의 이론들 사이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마련이다. 그 승자의 자리도 새로운 경쟁자 앞에서 언제나 위태롭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오늘날까지도 대학 강단의 한 모서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의 천체론과 물리학은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쓰러졌고, 연역법을 골자로 한 그의 ‘오르가논’ 논리학은 귀납법의 가치를 치켜든 베이컨의 ‘새로운 오르가논’ 앞에서 휘청거리다가 급기야는 기호논리로 무장한 현대논리학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결국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론이며, 따라서 그 변이를 추적하는 작업은 이론가에게 거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거둬드는 이론의 탈바꿈에도 불구하고 그 속의 내용이 동일 범위를 맴도는 수준이라면 그 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 변화를 뒤쫓는 것은 맹목의 추종과 다름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언어이론은 이것이 과연 언어이론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언어자료 쪽으로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면서 메타언어의 관념화에 집착하고 있다. 이른바 ‘주류파’로 통하는 촘스키식 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러한 변형이 생길 때마다 ‘발상의 전환’을 내세운다. 근본적으로는 이론모형만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 예’에 불과하다. 메타언어에의 집착 그리고 언어자료의 빈약함에 있어 촘스키식 이론을 훨씬 능가하는 ‘비주류파’ 이론들을 거론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를테면 언어학을 논리학의 아류로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남 못 알아 볼 기호조작에 골몰하는 이론도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그릇된 언어관, 즉 자연언어는 단정치 못하므로 논리어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후유증 현상이라 할 만하다. 몇개의 예를 더 들라면, 고등학교 영문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내용의 ‘차 한잔의 팡세’식 설명과 도표 그리기에 열중하는 이론, 외마디말 정도의 표현에 장황한 관심을 쏟는 이론,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와중에 언어학은 점점 ‘학문적 원숙미’와 ‘지적 세련미’를 잃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것들을 광범위하게 아는 것이 추상적 공식들을—그것들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많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윌리엄

제임즈는 말했다지만, ‘광범위한 지식’은 언어학의 도리가 아니던가. 돌이켜 보건대 현대언어학은 우선 그것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굴레를 극복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이론 적용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넓히느냐, 그럼으로써 엄밀학으로서의 입지를 어느 만큼 희생하느냐 하는 변민에 찬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 오늘날의 언어학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언어학도라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지나 고독한 공간에서 반향없는 독백을 즐기며 자폐적 환상 속에 잠재능력을 고갈시키고 있을 것인가. 지난날의 언어학은 이런 식이 아니지 않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어학이 표방하고 있는 ‘과학’이 과연 어떤 개념의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영역의 제한이니 가치중립성이니 형식상의 엄격성이니 하는 것들을 고수하는 것만이 과학적인 이론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미상불 ‘세계관 과학철학’은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일관성’, ‘타당성’, ‘설득력’ 등에 연관시켜 생각해 보라고 충고한다.¹²⁾ ‘객관성’이라는 말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겠으나, 이는 가치판단의 여지가 허락되지 않는 논리실증주의 식 검증가능성(verifiability)과는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무릇 이론이란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는 과정이요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이론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며 또한 가치판단적이다. 자기의 주관적인 이론을 남에게 설득시켰을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론이 된다.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론은 없다. 일찍이 칸트가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말로 귀땀하여 오늘날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라는 용어로 윤색된 개념도 방금 언급된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¹³⁾ 기실 ‘과학’에 해당

12) Norwood Hanson, Stephen Toulmin, Thomas Kuhn, Paul Feyerabend, Imre Lakatos 등을 위시한 세계관 과학철학자들은 1969년 “과학적 이론의 구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논리실증주의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논리실증주의의 객관적 관찰가능성 원리와는 반대로 관찰 자체가 이론에 의해 도출되며(Hanson), ‘자기의 세계관’에 맞는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이고(Toulmin), 세계관이 바뀔 때 따라 이론의 패러다임도 급격히 바뀌며(Kuhn) 따라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실은 ‘신화에서 신화로의 행렬’이라는 것(Feyerabend), 그리고 과학적 이론의 기준은 ‘검증가능성’이 아니라 (포퍼 식의) ‘반증가능성’이고 후자에 ‘보호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과학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Lakatos) 등등이 강조되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Suppe(1977, 633-82) 참조.

13) 칸트는 ‘취향판단(Geschmacksurteil)의 이율배반’을 논하면서(1974, 195-204) 다음과 같이 말한다: ‘취향판단은 일정 개념에 연관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판단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197). 좀더 쉽게 풀이하여, 내가 가령 어떤 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주관적’이다. 그러나 나에게 아름다운 꽃은 남에게도 아름답다.

하는 서양어는 본디 ‘앎’을 뜻한다. (science의 어원인 라틴어 scire는 ‘안다’는 뜻이다.) 건전한 사고에 이르게 하는,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논지 전개에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지식 말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potestas est)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을 때의 그 scientia처럼 말이다.¹⁴⁾

이렇게 보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말하던 ‘철학의 과학화’도 실은 동의어반복에 해당한다. (‘철학’에도 서양어 어원상 ‘앎’이 함의되어 있지 않은가.) 과학이 ‘물리 과학’ 정도의 뜻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에 성립되는 표현이다. ‘과학’이라는 접미사를 단 학문분과가 속출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연출하는 엄청난 효과에 모두들 압도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학이 ‘사회과학’으로, 역사학이 ‘역사과학’으로, 정치학이 ‘정치과학’으로 이름을 내건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얼마 전부터는 교육학이 ‘교육과학’을, 가정학이 ‘생활과학’을 자처하고 있다. (이쯤 되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꿈꾸던 ‘학문 일반의 과학화’가 결국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과학’의 꼬리표를 달고 싶은 분야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인문학을 ‘인문과학’으로 고쳐 부르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이래야 학문적 품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이런 명패를 붙인다고 해서 모든 학문이 과학이 되는 것도 아니요,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과학’ 내지 ‘과학적’이라는 낱말의 정의를 새로이 내리지 않는 한 ‘인문과학’은 당치않은 이름이다. 존재론과 윤리의 문제,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한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실증적 탐색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요량이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이러한 호칭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넓은 뜻에서의 과학을 취지로 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위의 말은 공연한 반박인 셈이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라면 언어학이 ‘언어과학’을 표방하는 것도 가당한 일이다. 일관성과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닌 설명법이라면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면 말이다. ‘발상전환’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되풀이하거나, 원리적 엄격성과 분석상의 엄밀성 등이 언어이론의 흔들릴 수 없는 본질이라 믿고 있는 한 언어학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을 것이다. 언어학은 결코 자연과학이 아니다. 더 이상 ‘엄밀학’의 감옥 속에 가두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개념이 있음을 뜻한다. 미적 판단은 ‘주관적으로 보편적’(subjektiv-allgemein)인 것이다(51-54/ 82-86). (‘상호주관성’이라는 역어에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대안—예컨대 ‘간(間)주관성’—은 더욱 궁색하게 들린다.)

14) 니체의 *Die fröhliche Wissenschaft*에서 보듯이, 독일어의 Wissenschaft라는 말도 ‘과학’이나 ‘학(문)’으로 번역하기 힘들 때가 많다. 본디 의미는 ‘앎’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론은 사치스러워야 한다”는 헬리데이의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아니면 소쉬르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어떤가?¹⁵⁾

하지만 나는 이 모두가 지겹고, 언어학적 사실에 연관하여 상식적인 성격의 글을 단 열 줄이라도 쓰는 데에 따르기 마련인 어려움이 역겹습니다. 특정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또 이들에 대한 연구 관점들을 분류하느라 하도 오랫동안 바쁘다 보니, 언어학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는 데에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각각 작용을 해당 범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일인가’, 그리고 언어학에서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왜 헛된 일에 해당하는가를 알리는 일 말입니다. [중략]

현재 통용되는 술어의 전적인 부당성,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대상인가를 밝히는 일—이런 것들이 내가 역사적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곤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언어학적 문제들을 아예 무시해 버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말입니다.

나 자신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 모두를 한 권의 책으로 써서, 내게 뭔가 의미 있는 용어가 어찌하여 오늘날의 언어학에는 단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담담한 심정으로 설명하고 싶군요.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미뤄 두었던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소쉬르는 여기서 자기 분야에 대한 허무감 따위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아비판’ 같은 것도 아니니, 우선 그는 자신에 대해 ‘언어학자’라는 범주화된 명칭을 고정시키고 있지도 않았을 터이다. 그저 ‘언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어학자들’이란 이른바 신문법가들(Neo-Grammarians)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쉬르도 청년시절에는 그 일원으로서 활약했으나 갈수록 실증주의에 몰두하는 그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말대로 소쉬르는 당대의 제반 이론들이 보이던 과학제일주의 성향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과학적, 양적 사고 이외에 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문학적, 질적 사고가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사고구조를 방법론적으로 성문화함으로써 온갖 종류의 새롭고 구체적인 연구를 가능케 했다”(1972, 11).¹⁶⁾ 위와 같은 진술은 소쉬르가 언어연구의 방향전환을 위해 얼마나 고

15) Jameson(1972, 12-3)으로부터 재인용. 메이예(Antoine Meillet)에게 보낸 1894년 1월 4일자 편지 내용의 일부라 함.

16) 제임슨은 소쉬르의 언어학이 프랑스 구조주의와 러시아 형식주의의 모델이 되었음을 간파하면서 이를 ‘언어의 감옥’에 비유한다. 그러나 그는 소쉬르의 공시주의(synchronism) 속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변증법적 문이론의 단초를 찾아내려 한다. 소쉬르의 구조주의에 내재

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실제로 그는 커다란 방향전환을 이루어냈다. '자신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 일' 이어서인지 과연 생전에 저서 한권 남기지 않았지만 말이다.) 한 세기도 더 지난 오늘 그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매우 적절하다.

필자의 개인적 관심영역이 언어학 분야에 속하는 만큼, 이 분야가 그간의 역사를 통해 이론 업적에 대한 언급으로 굳이 논지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는 않겠다. 다만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데리다, 바르뜨, 푸코, 라캉, 알튀세 등을 통해 일으킨 장파(長波)의 충격에서도 보듯이 언어학이 학문사나 지성사에 끼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어 온 언어학적 설명법들 중에는 언어적 통찰력과 감수성의 체득을 위한 탄탄한 길잡이 역할을 해 온 것들도 숭하게 있었음을 첨언하는 선에서 그치려 한다.

언어, 영원한 프로테우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언어이론'이라 할 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사실 언어에 대해 펼치는 그 어떤 권위있는 일가견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분적 진리일 수밖에 없다. 언어를 '마음의 거울' (홀볼트)이라 하거나, '존재의 집' (하이데거)이라 하거나, 혹은 '다이달로스의 오묘한 하모니로 상념과 형상을 다스려 의미와 자태를 부여하는 영원한 오르페우스의 노래' (셀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의 또 한편에는 부정적 언어관, 심지어 적대적 언어관도 있으니 말이다. 앞에서 평한 논리주의적 언어관의 경우는 그만두고라도, 저 옛날에 벌써 언어는 '인간 사유의 불완전한 모방' (플라톤)으로 격하된 바 있으며 그 이래로 '시장의 우상' (베이컨)이니 '사유와 인식을 해치는 폭군' (프리즈 마우트너)이니 하는 비난을 받아 온 것이다.¹⁷⁾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언어를 사유의 후차적 외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유에 선재하여 그것을 조형하는 것으로 보

한 역사성의 결여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자기 책의 서문에서도 밝히듯이 그는 목하 언어학의 모델이 지니는 '궁극적인 예비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기실 그는 '언어의 감옥'을 '도텔로서의 언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말이지만, 인간이 언어의 감옥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거나 한가? 곧 논하게 될 내용도 바로 이에 관련된 사항이다.

17) 독일의 실존철학자 Otto Friedrich Bollnow는 '언어적대감' (Sprachfeindschaft)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러한 견해를 평한 바 있다(이규호 1968, 13).

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며, 이에 따라 철학의 성격도 달리 나타난다. 분석철학자라면 거의 예외 없이 전자의 입장이고,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나 데리다 등은 전형적으로 후자의 입장이다. 그러니 ‘언어가 마음의 거울’인가 아니면 ‘마음이 언어의 거울’인가.

언어는 인간이 다니는 사색의 길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숨바꼭질 요정이다. 센스를 붙잡으려는 손에 난센스를 쥐어주는 야속하고 야릇한 존재다. “이름은 한낱 울림 소리요 연기이니, 하늘의 광휘를 가리는 안개”(Name ist Schall und Rauch, / Umnebelnd Himmelsglut)라고 괴테의 파우스트는 말한다(I: 3457-8행). “도라 부른다고 반드시 도가 아니요, 이름을 붙인다고 반드시 이름이 아니다”(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라는 말로 『도덕경』은 시작한다.¹⁸⁾ 마음속의 생각을 언어로 담아내면 벌써 그것은 원래의 생각과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경험한다. 가까이 다가오는가 싶게 도망가버리는 것이 언어다. “영혼이 말을 한다. 아! 그러나 그렇게 말하니 이미 영혼이 아니로구나”(Spricht die Seele, so spricht ach! schon die Seele nicht mehr)라는 쉐러의 탄식이나¹⁹⁾ “말은 펜 속에서 벌써 숨이 끊어진다”(Das Wort erstirbt schon in der Feder)는 괴테의 말(『파우스트』 I: 1728행)에 너무나도 공감이가다. 언어가 사유의 후차적 외현이라면, 그건 제대로 된 외현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언어가 사고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말도 틀린 게 아니다. 부정적 언어관, 적대적 언어관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가. 진리는 대개 두 기둥을 하고 있어, 하나의 기둥이 눈에 너무 가까우면 다른 기둥이 안보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말이지만, 위에 인용된 道可道非常道에서의 ‘道’자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목하의 가르침대로) 뒤라 선불리

18) 번역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도덕경이 설파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도’라 일컬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항상) ‘도’이어야(그렇게 불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라) 어떤 것을 특정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이름이려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名可名非常名은 道可道非常道에 대한 부연설명인 셈이다.) 어떤 대상과 그것의 이름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는—소쉬르 식으로 말하자면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는 임의적인 관계라는—점을 노자는 도덕경 첫머리에서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뭔가에 이름을 붙여 고정관념화하지 말라는 뜻도 되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실상이언(實相離言) 내지 불립문자(不立文字) 사상이다.

19) 쉐러의 이 인상적인 표현을 알게 된 것은 이규호 교수의 저서(1978, 137)를 통해서이다. 이 책에 언급된 원전을 입수할 수 없어, 독문과 김수용 교수를 통한 자료(Tabulae votivae von Schiller und Goethe, 313)에서 원문을 찾았음을 밝혀 둔다.

일컬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도가사상의 그 道’가 이때의 으뜸 의미이다. 그러나 도가의 불언지교(不言之教) 내지 불립문자(不立文字)론에 문혀 종종 간과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뜻이 도덕경 첫머리의 이 道자에 들어 있으니, ‘일컬을 道’가 바로 그것이다. 道는 ‘말할 수 없는 무엇’이자 동시에 ‘말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기실 말할 수 없는 것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도덕경 아닌가. 도가사상의 도리도 언어로 설파할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다. (名可名非常名에 대해서도 차후 논급할 것이다.) 뭔가를 말하는 듯 감추고, 감추는 듯 말하는 것이 언어이다. 언어를 감추는 것이야말로 언어의 특별한 기능이다.

언중무언(言中無言) 내지 무언지언(無言之言)의 문법은 문학 작품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그리스 군대로 하여금 트로이를 향해 ‘천척의 배를 띄워’ 그곳의 ‘쩔 수 없는 높이의 탑들을 불태우느’ 지경에 이르게 한 헬레나의 경국지색은 서양인들에게 시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곤 했다.²⁰⁾ 그런데 막상 『일리아드』에는 헬레나의 자태가 ‘꽃같은’ (flower-like), ‘흰 팔의’ (white-armed) 등 짝막하고도 상투적인 수식어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²¹⁾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대한 묘사로 장장 네 페이지를 할애할 정도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의 세밀화를 그리는 작품에서 말이다.²²⁾ 헬레나에 대해 좀 길게 언급된 부분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결투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 대해 군중이 서로 속삭이는 대목이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군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내용인데,²³⁾ 이로서 헬레나의 미모는 ‘간접적’으로 언급된 셈이다. 요컨대 시인은 헬레나

20) 인용 표현은 Christopher Marlowe의 Doctor Faustus(1616년 판, V: i, 97-99행)에 근거한 것임: Was this the face that launched a thousand ships, / And burnt the topless towers of Ilium? / Sweet Helen, make me immortal with a kiss!

21) ‘상투적’이라 함은, 가령 ‘흰 팔’에 대한 언급은 헤라 여신 등에 대해서도 번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2) Auerbach(1953, 6-7)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그 어떤 형태도 단편적이거나 반쯤만의 해명으로 남겨두는 법이 없고, 그 어떤 탈문(lacuna)도, 그 어떤 빈틈도, 그 어떤 흐릿한 구석도 내보이지 않는다”.

23) “We cannot rage at her, it is no wonder / that Trojans and Akhaians under arms / should for so long have borne the pains of war / for one like this.” “Unearthliness. A goddess / the woman is to look at.” 이는 Robert Fitzgerald의 번역(1974: III, 186-190)으로, Robert Fagles(1990)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Who on earth could blame them? Ah, no wonder / the men of Troy and Argive under arms have suffered / years of agony all for her, for such a woman. / Beauty, terrible beauty! / A deathless goddess—so she strikes our eyes!”

의 아름다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감으로써 결국 그 아름다움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무언지언의 멋진 예인 셈이지만, 이런 효과도 실은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세세한 묘사법 때문에 '대조적'으로 생기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터이다. 즉 언중무언의 예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독자(혹은 청자)의 상상력으로 언어의 공백을 채우게 하여 헬레나의 절세 미색을 더욱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도 결국은 그 공백을 둘러싼 언어의 힘이다. 언어를 감추는 것이 언어라면, 감추어진 언어를 드러내는 것 또한 언어인 것이다.

그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위의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는 결국 언어라는 것이 인간의 정서나 사유를 제대로 외현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실리의 한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실상이언(實相離言) 사상의 불언지교(不言之教)에 문혀 버려야 하느냐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는 "도무지 표현할 도리가 없는 것에 작용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표현해 보이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케가미 1994, 14에서 재인용). 언어의 이러한 능력은 종종 시인의 펜끝을 타고 나온다.

뭔지 모를 것들의 윤곽을
상상이 그려낼 때면, 시인의 펜이
그 모양을 다듬어, 허공의 떠돌이에게
거처와 이름을 준다.

(And) as imagination bodies forth
The forms of things unknown, the poet's pen
Turns them to shapes, and gives to airy nothing
A local habitation and a name.

(*A Midsummer Night's Dream*, V: i, 14-17행)

“이름이란 게 뭐가요? 장미라 부르는 건 다른 어떤 말로도 향기로운데”라는 말도 있지만(『로미오와 줄리엣』 II: i, 85-6행), 또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시의 즐거움을 4분의 3이나 억누르는 것”이라는 말라르메의 말도 있지만(Eco 1989, 8에서 재인용), 시인은 표현불가능성과 부단히 투쟁하면서 '뭔지 모를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며, 그럼으로써 (poet라는 낱말의 본디 뜻대로) '창조자'가 된다.²⁴⁾ “이름은 한낱

24) 성서의 우주창조론은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를 창출하는 것도 바로 '이름'이라 하지 않는가(각주7 참조).

울림소리요 연기”라는 괴테의 말을 앞서 인용했거니와, 또다른 대목에서 그는 “이름을 들으면 대개 본질을 알 수 있지”라고 말한다(『파우스트』 I: 1331-2행).²⁵⁾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후자가 ‘오직 본질의 깊이에 눈을 두는 사람’ 치고는 시시한 질문이라 빈정대자 이에 응수하는 대목이다. “말은 펜 속에서 벌써 숨이 끊어진다”는 파우스트의 대사도 인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훌륭한 논지는 말로써 가능하고, 체계를 세움도 말의 덕택”이라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언변(I: 1997-8행)을 병립시킬 수 있다. 괴테는 이 두 배역을 통해 언어의 양면성을 끊임 없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의 名可名非常名은 실상이언 내지 불립문자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사실이지만(각주18 참조),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 있음이 만물의 모태이다”(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라는 구절이다. 태초는 이름이 없던 상태였으되, 만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름으로 인함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의 전반과 후반은 각각 성서에서 말하는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상태 그리고 (이름붙임을 통한) 천지창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지 않는가(각주7 참조)! 앞서 언급한 헤라클레이토스의 경우까지 합쳐 보건대, ‘로고스 우주생성론’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도가사상을 두루 관통하는 셈이다! 아무튼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도가의 실상이언 사상 맞은편에는 이름이 만물의 모태라는 개념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천지의 오묘함을 보게 되지만(無欲以觀其妙) 그런 마음 속에서라야 비로소 실상계의 모습이 파악되는 법이니(有欲以觀其微), 이 두 가지는 같으면서 겉으로 이름이 다를 뿐(此兩者同 出而異名)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란 妙와 微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無欲과 有欲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메를로-퐁띠에에 의하면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구분해 내어 그것을 하나의 본질 내지는 범주의 전형으로 보기 위함이다”(1962, 176). 언어가 인간의 머리카슴을 완벽하게 재연해 내지는 못할지라도, 애매하게 생각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언어의 상자 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곧 잊혀져 버린다. 만젤슈탐의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²⁶⁾

25) “이름 가지고 내가 누군지 그대에게 어떻게 말하리요”(By a name / I know not how to tell thee who I am)라는 로미오의 말(II: i, 95-6행)이 여기에 다시 겹쳐 오른다.

26) 만젤슈탐(Osip Mandelstam)은 러시아의 상징주의 시인으로, 여기에 인용된 것은 여섯 연으로 되어 있는 “제비”라는 시의 첫째 연 1-2행과 다섯째 연 3-4행임. 그의 “가장 아름답고도 난해한 시들 중 하나”인 이 시에서 제비는 사유의 상징으로 “검은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생

말하려던 낱말을 나는 잊어버렸다.
 눈먼 제비가 어둠의 세계로 돌아간다.

[중략]

말하려던 낱말을 나는 잊어버렸다.
 형체없는 생각이 어둠의 세계로 돌아간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사고는 심리적으로 희미한 부정형체일 뿐이다... 언어가 없다면 사고란 것도 모호하고 애매한 구름 덩어리다. 미리 존재하는 개념이란 없으며, 언어로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분명치 않다”는 소쉬르의 말(1959, 111-2)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무지개가 우리에게 일곱 가지 빛깔로 보이는 까닭은 언어의 힘이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잔 키닝엄의 말대로 “직관이 없는 경우에 언어는 본질들을 재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키닝햄 1995, 76). 아니, 바슐라르의 말대로 “언어는 그 어떤 직관보다도 풍요롭다”(끌라레 1993, 17).

언어는 사물과 현상을 정리하여 어떤 것은 부각시키고 또 어떤 것은 숨겨 놓는다. 의미의 효율적인 저장이나 전달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엄밀함’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밀한 사유를 넘어서서 상상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의 ‘느슨함’을 지향한다. 언어가 부단하게 모습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정의(定義)를 거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언어는 영원한 프로테우스다.²⁷⁾

대통합 언어이론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불완전의 진리’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오

명(내지 영혼)과 말 사이를 날아다닌다”(Przybylski 1987, 51-56). 우리말 번역은 조주관 (1996, 91-2)에 근거한 것임.

27) 회랍신화에서 프로테우스는 바다 신 포세이돈의 휘하에 있는 노인으로, 과거와 현재의 일을 모두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력도 지니고 있지만, 자기의 조언을 들으려고 누가 접근하면 기발한 변신술로 피해 버린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 귀향길에 오른 메넬라오스가 낮잠에 빠진 그를 덮쳐 붙잡고 자신의 행방에 관한 조언을 구하자 그는 사자, 뱀, 표범, 멧돼지, 물, 나무 등으로 변신하여 달아나려 한다. 결국은 메넬라오스의 끈기에 굴하여 청을 들어주지만 말이다: Mandelbaum역 *Odyssey IV*, 78 참조.)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면 무엇이건 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는 만물의 원질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는 날에는 짚신장수가 올상이고, 개인 날에는 우산장수가 한숨쉰다. 이 둘을 동시에 신나게 할 날씨는 없다. 사실 본질을 찾아 사물을 파헤치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히나마 본질이라고 생각하던 것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²⁸⁾ 미의 본질도 이러한 것이라고 에밀리 디킨슨은 읊는다.²⁹⁾

매력이 감싼 얼굴
완전히는 안 보이네—
저 여인 차마 베일을 못 올리네
그 매력 흩어질라 두려워—

A Charm invests a face
Imperfectly beheld —
The Lady dare not lift her Veil
For fear it be dispelled —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 매력은 사라져 버린다! 매력(Charm)의 한 꺼풀을 벗기면 해(harm)가 된다고 귀뜸하는 셈이니, 이러한 점을 일깨우는 영어 낱말의 모양 또한 여기서 절묘하다.

진리니 본질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세월의 흐름따라, 그리고 사람따라, 왜 그다지도 다르단 말인가. 엉뚱하게도 오히려 인간 삶에 불화와 반목을 초래하고 때로는 상호살상의 구실까지 되곤 하니 말이다. 끝의 끝까지 안타깝게 추구하는

28) 첨단의 정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이론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견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간단히 말해 입자의 속도와 위치, 시간과 에너지 등의 변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요지이다.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면 속도의 측정이 부정확해지고, 속도를 추적하다 보면 어느새 위치가 불분명해진다. 파동역학적으로는, 파동처럼 보이는 전자의 영상을 포착하면 입자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그것이 파동이 아닌 입자로 변해버린다. (아인슈타인이 일생의 황혼기에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통일장 이론'도 바로 이러한 모순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그의 임종침대는 맥스웰의 전자기장을 자신의 일반상대성이론과 통합하려는 방정식이 적힌 종이들로 어지러웠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측정기구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주의 고유 성질이라 한다. 우주는 그 어떤 양도 최종적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29) Thomas H. Johnson의 1955년 판본 421번 시 여덟 행 중 전반.

욕망에서 해방되어 불완전한 이해와 지식, 불확실성 속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그것도 과연 하나의 능력이다. 키츠가 말하는 ‘소극적 수용력’(negative capability)도 이러한 능력을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닌 고틀로프 프레게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인문학이라 불리는 것은 시학에 보다 가까우며, 따라서 엄밀해지면 엄밀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내용이 더욱 더 건조해지는 엄밀과학에 비해 덜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엄밀과학은 진리를 향하고 있으며 진리만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뮤니츠 1997, 158에서 재인용)

내용이 건조해질대로 건조해져야만 엄밀과학이라면, 그리고 그토록 엄밀해야만 ‘과학적’인 것이라면, 인문학은 과연 과학적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과학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상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거니와, 프레게가 강조해 마지않던 그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논리실증주의가 뜻하는 ‘의미’에 관해서도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논급한 바 있지만, 과학적이면서도 무의미하고 진리에 대한 암시조차 담고 있지 못한 이론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은가. “일상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 즉 감정의 표현, 농담, 문학작품의 허구적 창조, 애매하거나 현혹시키거나 모호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 등등의 요소들은 모두 배제”하고 “모든 언어적 표현들은 단 하나의 명료한 뜻—표준적·명시적·획일적인 뜻—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프레게의 언어철학이었는데(같은 책, 154), 그렇다면 그가 진리라 부르던 것도 결국은 고작 ‘논리단소’들의 집합이었던 말인가! 메마른 언어관의 가치에 매달린 메마른 진리관이다. 매력이 흩어질까 두려워 배일을 못 벗긴다는 디킨슨의 말, 혹은 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은유법(metaphor)·환유법(metonymy)·의인법(anthropomorphism)의 꿈틀대는 무리이다. 한마디로 시적으로 그리고 수사적으로 강화된 인간관계의 총화이다. (Sedgwick 1995, 280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우리는 프레게 언어철학의 주요 결실 중 하나인 논리실증주의를 거론하는 가운데 그 실패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그 하나로 ‘통합학문’이라는 개념을 검토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른 학문분야들을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어불성설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나로는 언어를 논리단소의 집

합체로 환원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인식론의 꼬트머리에 이르기까지 확실성을 집요하게 추적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언어의 창을 통해 바라 볼 수 있는 세계를 터무니없이 좁혀 놓은 것이다. 논리실증적 언어분석의 가장 큰 성공은 인간 언어에 대한 그같은 접근법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밝힌 데에 있다.

오늘날의 언어학도 이와 비슷한 경우임을 지적했다. ‘과학적’ 이론을 추구하는 도정에서 오늘의 협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향하는 과학의 개념이 좁은 만큼 그것이 들여다보는 언어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내다보는 세계가 좁았던 것이 논리실증주의였다면, 현대언어학은 언어 그 자체를 좁게 들여다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이란 (앞서 언급한 이데아의 경우와 흡사하게) 원래 ‘본다’(theorein)는 뜻에서 온 말이다. 사물이나 사건에 관한 견해 내지 관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론이다. 이 글의 제목에 붙은 ‘언어이론’도 실은 ‘언어관’ 정도를 의도하고 있다. 아무리 세부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춘 이론이라도 그 대상의 부분만을 설명하는 데에 그친다면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며, 설득력을 얻기는 더 힘들다. 부분과 부분 사이의 연관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없다면 이는 ‘코끼리 만지는 장님’ 격이기 때문이다.

양적 완벽을 선행조건으로 하고서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 생길 법하다. 언어는 수많은 요인들의 복합체인데,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언어이론이 있을 수 있는가. 양적인 문제를 떠나 ‘성격 구분’의 문제도 도열해 있다. 예컨대 뇌신경학적인 요인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시어(詩語)를 수리논리적으로 풀이해도 되는가. 그러니 올바른 언어이론이라면 오히려 연구대상을 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요지를 간과한 소치이기도 하다. 한정 대상에 설명의 체계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포괄체로서의 언어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라면 그 설명법은 오히려 시각 장애물에 해당한다. 부분적 정밀성과 정확성에 못지 않게—아니 훨씬 더—중요한 것은 전체적 조감도이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전망을 위해 부분에 관한 집념을 유보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 수용력’이 아니라 ‘적극적 수용력’이라 생각한다. 견해 내지 관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론이라고 위에서 말했거니와, 사실 관점에 선행하는 이론은 자칫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³⁰⁾ 중요한 것은 대상을 우선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이며, 미상불 이것이

30) 그러므로 “관찰이 이론에 의해 유도된다”(Observation is theory-driven)는 세계관 과학철학자들의 명제(각주12 참조)도 주의를 요한다. ‘객관적 관찰가능성’만을 강조하는 논리실증주

올바른 이론의 시발점이라 믿는다. 현상학에서 이론보류(theory-unloading) 내지 판단중지(epoché)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부연하건대 전공의 가치나 중요성을 무시해서도 아니다. 전문분야의 차별화가 인간 지성의 다면적 전개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개 분야에 축적된 지식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음미하는 가운데 모종의 융합점을 모색하는 일 또한 중요하며, 기실 다면적 지식 추구의 진정한 의의도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부분적 진리는 다른 부분적 진리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소위 '인문학의 위기' 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문화 내지 세분화로 인한 학문적 유대감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전공의 특수화·구획화로 인해 지적 활동의 연결고리는 점점 빈약해지고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것들은 부분별로 분해되어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언어의 경우가 그 하나의 예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결정적인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전제로 상정한 명제, 즉 모든 학술활동의 근간은 언어라는 명제 그 자체는 옳았다. '언어적 전환'이라는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를 차치하고라도, 이는 사실 상식에 속하는 개념 아닌가. 더 넓게 보아 언어는 사유의 객체이자 주체요 모든 의미의 결정체다. 인간 삶의 모든 양상이 거기에 투영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선인들의 숨결을 느끼기도 한다. 언어는 지식과 지혜의 무진장한 보고(寶庫)이며 끝없는 미적 추구의 산책로이다. 우리는 언어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옛것을 묵상하고 언젠라도 새로운 탐구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의미세계 속의 자기 존재를 확신한다. 본질은 언어로 구성되는 것이다.³¹⁾

의는 이론을 '맹목적 관찰로부터의 귀납'으로 격하시킬 위험이 있지만, 이론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 과학철학의 주장도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 31) '언어는 본질을 구성한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본문의 수동표현이 '모든 본질'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말이다. 아무튼 "텍스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리다의 말과는 구별되기 바란다. 본질부재론에 연결시키지는 말아달라는 뜻이다. 이러한 논제에 조리를 세우기에는 지면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만큼은 언급해 두고 싶다. 목하의 논제는 결국 '언어가 사유의 외현이냐 아니면 그 조형자냐' 하는 점에 귀착하는 것으로, 데리다의 표현법은 전자의 가능성에 대한 전적인 부정에 해당한다. 이는 그가 '본질을 좀처럼 표현해내지 못하는 언어'를 운위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에게는 모든 본질이 언어의 조형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실러나 만젤슈담의 한탄, '표현불가능성과의 투쟁',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개념인 셈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필자는 언어가 사유의 '객체이자 주체'라고 생각한다. 즉 언어가 사유의 후차적 외현인 경

이런 점에서 언어는 야스퍼스의 말대로 그 무엇도 거기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는 포괄자(ein Umgreifendes)이자 존재의 현현(das Offenbarwerden des Seins)이요, 하이데거의 말대로 감추어진 존재의 드러남(die Unverborgenheit des Seins)을 통해 역사적 현존을 가능케 하는 존재의 집(das Haus des Seins)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조형자요 우두머리인 양 행세하지만 실은 언제나 언어가 인간의 주인이다”(Der Mensch gebärdet sich, als sei der Bildner und Meister der Sprache, während doch sie die Herrin des Menschen bleibt)라는 하이데거의 말(1954, 146)은 앞서 인용된 바 있는 “로고스가 보편적인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독자적 지혜가 있는 양 살고 있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연상시킨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철학자들 특유의 사변적 수사법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론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가령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브랜든 카터, 스티븐 호킹, 존 휠러 등은 ‘인류원리’(anthropic principle) 내지 ‘관찰자원리’(observership principle)를 운위한다(보슬로우 1990, 159-70). 우주의 존재이유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뫼토스 어휘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 이상 좋은 설명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주가 존재함은 그것을 인식하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말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지각하거나 생각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엇만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짓는 것이며 그 이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니, 이보다 더 좋은 설명법이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우주의 어느 구석엔가 우리 인간과는 사유체계를 전혀 달리하는 존재가 있어

우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본질을 좀처럼 표현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가 못마땅스러운 때도 있는 것이다. 이에 연관하여 필자는 17세기 법학자 그로티우스가 ‘자연법’에 관하여 한 말이 생각난다. 학창시절 어디선가 읽은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깜깜한 밤을 항해하는 사람은 북극성을 향해 노를 젓는다.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법은 북극성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진리나 본질이니 하는 것을 북극성에,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북극성을 향한 항해자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진리란 가변적인 것이지 북극성처럼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변함없는 진리’가 환상이라면 ‘진리란 환상일 뿐’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진리부재론은 진리란 없다는 진리를 내세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은 (그것이 니체식의 것이든 데리다식의 것이든) 독단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건 진리와 본질을 무턱대고 부정함에서 오는 암울하고 지리멸렬한 세계관만큼은 극복해야 할 터이다.

그들의 우주를 운위할지도 모르나, 그 우주는 우리의 우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목학 물리학자들이 흐리멍덩한 어휘의 힘을 빌려 오늘의 연구를 종식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인류원리에 의지한다 해도 우주의 원초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떤 통일이론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호킹은 말한다(같은 책, 164). 또한 프리츨프 카프라의 『물리학의 도』(The Tao of Physics)라든가 마이클 텔보트의 『신비주의와 신물리학』(Mysticism and the New Physics) 등등의 부류를 겨냥한 것이지, “동양 신비사상의 우주는 환상이지요. 자기 연구를 동양 신비사상과 연결지으려는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포기한 겁니다”라고도 말한다(167). 이러한 시각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논제이지만, 어쨌든 우주에 대해 사유(logizein)하고 이를 언어(logos)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있는 한에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류원리의 요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본 성서의 우주창조론이나 괴테의 로고스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사유와 상상력이 기진(氣盡)한 곳에서 이처럼 로고스와 뫼토스는 언어로 뭉치는 것이다. 종교에서든, 철학에서든, 문학에서든, 자연과학에서든, 궁극적인 의미세계는 언어의 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대통합 언어이론’이 물리학에서와 같은 어떤 단일 이론체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으리라 믿는다. 언어의 여러 면모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달리 표현하자면 ‘인문학적 언어관’을 통해—전공의 가치 그리고 보다 넓게는 인문학의 가치를 균형감있게 재조감하면서, 단절된 지적 교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글의 근본 취지이다. ‘언어이론의 대통합’이 아니라 ‘언어관의 대통합’을 의도하는 것이다. 프로테우스만큼이나 변신에 능하고, 과거와 현재를 두루 꿰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언어이다. 프로테우스가 만물의 원질이라면, 언어는 사유와 감성의 원동력이다. 다양한 언어관이 어우러져 교감하는 향연(심포지움)의 자리에 언어의 신비는 또하나의 프로테우스로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인용문헌

- 플라레, 자끄(Jacques Claret). 『사고와 형식』(L' *idée et la forme*). 박윤환 역. 서울: 탐구당, 1993.
- 무니츠, M. K.(Milton K. Munitz). 『현대분석철학』(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박영태 역. 서울: 서광사, 1977.

- 박성창. 『수사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보슬로우, 존(John Boslough). 『스티븐 호킹의 우주』(*Stephen Hawking's Universe*). 홍동선 역. 서울: 책세상, 1990.
- 이규호. 『말의 힘』. 서울: 제일출판사, 1968.
- 이케가미, 요시히코(池上嘉彦). 『시학과 문화 기호론』(詩學と文化記號論). 이기우 역. 서울: 한국문화사, 1994.
- 조주관(역). 『오늘은 불쾌한 날이다: 오시뻘 만젤쉬뻘 시선집』. 서울: 열린책들, 1996.
- 커닝햄, 수잔(Susan Cunningham). 『언어와 현상학』(*Language and the Phenomenological Reductions of Edmund Husserl*). 이종훈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Austin, John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P, 1962.
- Auerbach, Eri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 W. R. Trask. Princeton, NJ: Princeton UP, 1953.
- Cassirer, Ernst. *Language and Myth*.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3.
- Durant, Will. *The Pleasures of Philosophy: A Survey of Human Life and Destin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2.
- Eco, Umberto. *The Open Work*. Trans. A. Cancogni. Cambridge, MA: Harvard UP, 1989.
- Heidegger, Martin. *Vorträge und Aufsätze*. Pfullingen: Günther Neske Verlag, 1954.
- Jameson, Fredric. *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unt of Structuralism and Russian Form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2.
- Jaspers, Karl. *Die Sprache / Über das Tragische*. München: R. Piper & Co. Verlag, 1990.
- Kant, Immanuel. *Kritik der Urteilskraft*. Hamburg: Verlag von Felix Meiner, 1974.
- Merleau-Ponty, Maurice.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 Smit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2.
- Popper, Karl.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 Row, 1968.
- _____.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 _____.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 Przybylski, Ryszard. *An Essay on the Poetry of Osip Mandelstam*. Trans. M. G. Levine. Ann Arbor, MI: Ardis Publishers, 1987.
- Saussure, Ferdinan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W. Baski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59.
- Sedgwick, Peter R. *Nietzsche: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1995.
- Suppe, Frederick.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Urbana, IL: U of Illinois P, 1977.

Tallis, Raymond. *Not Saussure: A Critique of Post-Saussurean Literary Theory*. London: Macmillan, 1995.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 G. E. M. Anscombe. London: Billing & Sons Ltd., 1978.

[Abstrac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Language

Kyung-Hwan Moo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does not deal with a theory or theories in the usual sense of the term but rather harks back to its etymological source, therein 'to look at.' The phrase 'theory of language' thus purports a 'view of language' and does not carry the force of scientific explication of language. In fact, the word 'scientific' or 'science' per se originates from scire 'to know' and is here to be considered not so much in regard to some kind of positivistic methodology as a form of knowledge. If this exposition sounds unduly ingenious, that is because one is caught up in all kinds of presuppositions about the words under consideration. Sometimes, when we come to grips with an issue that strikes our mind as truly important, our language, by the light of which we hope to proceed safely, plays the will-o'-the-wisp instead and leaves us in the middle of a murky maze, twisting what was at first blush a mere cinch into a Gordian knot. On such occasions, etymology comes along the way and sends us back to itself as its own principle: Resort to etymos logos 'original, true word'!

The main thrust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alongside the quantitative, positivistic thought there is another equally valuable mode of qualitative and humanistic thinking that makes a whole gamut of new and concrete investigations possible, that an integrated theory of language is possible by way of a happy amalgamation of diversified, humanistic views of language. With this idea as the leitmotif we explore two models of theory which typically set themselves up for a 'scientific' approach to language: analytic philosophy that delves into what it calls logical simples, and

contemporary linguistics that stubbornly teeters around some formal rigor or other. It is argued that they are both characterized by a looking away from the fluid, ill-definable aspects of language, giving a preference to segments and isolated facts as a means to avoid those larger wholes and totalities which if they had to be seen would in the long run lead to an uncomfortable state of mind. Language, in the final analysis, is a Protean entity: so capricious and multifarious, and yet so noetic and prophetic, that we should catch sight of its picturesque images in their entirety to give form to an integrated theory of language.